



매년 여름 보스턴에서 한 시간 가장 떨어진 레녹스에서 열리는 '탱글우드 재즈페스티벌'. 탁 트인 잔디밭에 앉아 즐길 수 있는 매력 덕분에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찾는 음악축제로 자리잡았다.



보스턴 심포니 홀은 미국의 3대 교향악단인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전용홀이다. 현대 건축음악학 이론을 설계에 반영한 최초의 음악당으로 "콘서트홀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보스턴 심포니홀 제공)

세계 3대 음악당, 콘서트홀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16)보스턴 심포니홀

보스턴=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계획'을 듣고 어설피다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상관없다. 내 바람은 단지 훌륭한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콘서트를 보스턴 시민(Bostonian)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이제 '보스턴인'들도 언제든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높은 음악회를 즐길 때가 됐다"

1870년대 중반 보스턴의 정유업자이자 자선사업가인 헨리 L.히긴슨(Henry Lee Higginson·1834~1919)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오래전부터 꿈꿔왔

던 '거사'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하버드대 재학중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지만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음악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다. 유학시절 근사한 공연장에서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는 유럽의 오케스트라들에게 매료된 그는 자신의 못다한 꿈을 대신해 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시만 해도 보스턴에서 콘서트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순회공연뿐이었다. 그것도 부유층들이나 접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였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그는 지휘자인 조지 헨셸(George Henschel)에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임했다. 히긴슨의 전폭적인 지원과 헨셸의 뛰어난 역량으로 1881년 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oston Symphony Orchestra·보스턴 심포니)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은 그시절 미국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초대 지휘자로 선임된 헨셸은 이듬해 10월 파크 스트리트의 보스턴 뮤직홀(Old Boston Music Hall)에서 보스턴 심포니의 창립음악회를 열었다. 첫 시즌제(24회 공연)의 티켓가격은 5~10달러. '음악회=그림의 떡'으로 여겼던 보통 사람들은 전례없는 '착한 가격'에 자연스럽게 클래식 애호가가가 됐다.

1893년 6월, 거칠 것이 없었던 보스턴 심포니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보스턴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철도 공사계획이 메사추세츠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10

개관 111년...조지 헨셸 등 전설의 지휘자들 거쳐가 보스턴심포니 국내외 투어 등 활동 활발...세계가 사랑

여 년간 전용홀로 사용했던 보스턴 뮤직홀이 철거될 기를 맞은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나왔을 판이었다.

보스턴 심포니 정기 회원들은 자신들이 오갈 데 없는 세입자가 된 것 마냥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히긴슨은 패배를 부리며 콘서트홀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몇년 전부터 자신의 '본신'을 좀 더 우아한 무대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1892년 신시가지 개발구역인 백베이(Back Bay)에 부지를 마련, 유명 건축가 찰스 플렌 맥킨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새 공연장의 설계가 가시화되자 하버드대 총장 찰스 엘리트가 히긴슨을 찾았다. 그는 하버드대 물리학과와 짧은 교수 윌레스 클레멘트 세빈을 음향컨설턴트로 추천했다. 당시 하버드대 포그 미술관 강당의 음향 개선 연구에 매달렸던 그는 홀의 용적(cubic volume)과 쿠션이 있는 객석수로 잔향시간을 계산해 내는 공식(일명 세빈의 음향공식)을 알아냈다. 홀음재의 면적이 넓을수록 잔향시간은 짧아지고 홀의 용적이 클수록 잔향

시간은 길어진다는 논리는 현대 건축 음악학의 초석이 됐다. 보스턴 심포니 홀은 바로 이 현대 음악학 이론을 설계에 반영한 최초의 음악당이다.

지난 1900년 10월 15일 문을 연 보스턴 심포니 홀은 개관과 동시에 전문가들로 부터 '콘서트홀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보스턴 심포니 홀(객석 2625석)은 단풍 나무로 만든 바닥을 제외하면 벽돌, 철, 회반죽으로 지어졌다. 가볍고 명료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개관 50주년, 바흐 서거 200주년 기념으로 새 파이프 오르간(파이프 5130개)을 설치했다.

올해로 개관 111주년을 맞은 보스턴 심포니 홀은 빈 무지개여라인,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당'으로 성장했다. 특히 보스턴 심포니는 뉴욕 필하모니, 시카고 심포니와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빅3 관현악단'으로, 국내외 투어와 라디오, TV, CD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 '세계의 오케스트라'로 사랑받고 있다.

명성에 걸맞게 초대 지휘자인 조지 헨셸의 뒤를 이어 빌헬름 게리케, 아르투르 니키슈, 에밀 파우어, 칼 무크, 막스 피들러, 피에르 뫼티,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오자와 세이지, 아사 피들러, 제임스 레바인 등 훌륭한 '레전드'(legend)들이 거쳐갔다.

보스턴 심포니 홀은 연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음악의 전당으로 이끈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심포니 시즌제가 끝나면 세미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꾸며지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심포니홀과 보스턴 찰스강 인근 에스플라네이드의 야외공연장 헤치 셸(Hatch Shell)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매년 여름(6월20일~8월말) 보스턴에서 한 시간 가장 떨어진 레녹스에서 열리는 탱글우드 재즈페스티벌(Tanglewood Jazz Festival)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잡았다. 보스턴 심포니 주관으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지역 음악인들의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이 축제는 실제 공연장(쿠세비츠키 뮤직셰드, 오자와 세이지홀)과 탁 트인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매력 덕분에 음악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보스턴 심포니홀의 홍보디렉터 캐슬린 드로한(Kathleen Drohan)은 "전통과 품격을 고집하는 유럽의 빅 심포니들과 달리 보스턴 심포니 홀은 세대와 장르, 장소와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관객들과 소통한다"면서 "세계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보스턴은 '문화적으로' 축복받은 도시"라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2011 가을&겨울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미얀마 전문

광주 왕복항공 주중출발 1박2일 골프 4명이상(1조) 출발가능!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1.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홀</p> <p style="padding: 2px;">▶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299,000</p>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4. 관광호텔 (2인1실) 36홀</p> <p style="padding: 2px;">▶ 제피로스CC 18홀+▶ 세인트포CC 18홀 ₩349,000</p>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2.부영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p> <p style="padding: 2px;">▶ 더클래식CC 18홀, ▶ 부영CC 18홀 ₩329,000</p>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5.에버리스 골프텔 54평 (4인1실) 45홀</p> <p style="padding: 2px;">▶ 라온CC 18홀 + ▶ 에버리스CC 27홀 ₩389,000</p>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3.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p> <p style="padding: 2px;">▶ 아덴힐CC 18홀, ▶ 한라산CC 18홀 ₩339,000</p>	<p style="background-color: #f08080; color: white; padding: 2px;">6.오션스위츠 호텔 (2인1실) 36홀</p> <p style="padding: 2px;">▶ 블랙스톤CC 18홀 + ▶ 세인트포CC 18홀 ₩419,000</p>

365일 좌석확보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능!

♣ 기타 다른골프장 및 숙소 선택 가능합니다. 2박3일 골프투어 및 자유여행, 한라산등반 가능합니다. (요금별도 문의)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단독수송차량. ▶공통 불포함사항 : 캐디피, 전용카, 식사, 기사팁, 유가할증료 (11월기준 ₩24,200)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